

'94. 정기대의원총회

제15대 회장에 林漢鐘 회장 재선

부회장에 金相仁 교수(유임), 李純炯 교수(신임) 선출



林漢鐘 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해 11월30일 서교호텔에서 '94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94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개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운택 대의원을 임시의장으로 뽑고 5명의 전형위원을 선

출하여 林漢鐘 회장과 金相仁 부회장, 李純炯 부회장 등을 새 임원으로 추천하였으며, 추천된 임원들은 다시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선임되었다.

특히 이번 임원 선출에서는 기왕의 이사진 전원을 유임시키기로 하는 한편, 협회의 목적 사업 수행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김완태 명지대 명예교수, 박창래 변호사,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염용태 교수, 고려의대 내과 박승철 교수 등 이사 4명을 새로 선출했다.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金相仁 부회장(유)



李純炯 부회장(신)



金完泰 이사(신)



朴昌來 이사(신)



廉容泰 이사(신)



朴陞哲 이사(신)



金恩雨 이사(유)



高永喜 이사(유)



閔獻基 이사(유)



李承徽 이사(유)



安商玉 이사(유)



洪彰義 이사(유)



高應麟 이사(유)



金三壽 이사(유)



陳東植 이사(유)



沈雲澤 이사(유)



趙漢翊 감사(유)



趙昇烈 감사(신)

건협 새해 총 예산 213억

'94. 정기대의원 총회서 통과



지난 해 11월 30일에 있었던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를 213억여원으로 확정·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95년도 건강관리사업 목표 163만여명, 기생충관리사업 목표 204만여명 등 '95년도 사업계획

을 심의·확정했다.

한편 이날 개회사를 통해 林漢鐘 회장은, 『지난 30년간 건협은, 기생충퇴치사업과 건강관리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건협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보건의식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보건예방사업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 건협사업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공이 큰 유관기관 인사(손재현 경상남도의회장 외 12명)에 대한 회장 감사장 수여도 있었다.

학생건강관리 위한 의견 교환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는 '94년 학교 보건관계자 초청간담회를 지난 해 12월 2일, 지부 회의실에서 가졌다.

건협 경남지부, 학교보건관계자 초청 간담회

도 교육청 인사, 시·군 교육청 인사 등을 비롯해 협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건강관리 및 집단 건강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협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비디오 상영도 있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초청인사에 대한 건강검사도 실시했다.

새 사무총장에 成正雄 부장 선출



成正雄 사무총장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해 12월 26일 제3차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사무총장직에 성정웅 총무부장을 선임했다.

신임 성정웅 사무총장은, 1936년 전남 담양에서 출생하여 '54년 조선대 부속고

건협, 지난 해 12월 26일 임시 이사회서

등학교를 졸업한 이래 '68년 민주공화당 전남지구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74년 건협 본부 공보과장으로 입사해 '76년 경기도지부 사업과장, '81년 본부 의료부 조사연구과장, '83년 본부 총무과장, '84년 본부 사업부장, '89년 본부 총무부장, '92년 서울시지부 사무국장, '94년 본부 총무부장을 역임하는 등 20여년간 협회와 고락을 함께 해왔다.

한편 신임 성총장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나는대로 앞으로 3년간 건협의 사령탑으로 협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건협 제주지부 신항식씨, 신장 기증

지난해 12월 큰형에 장기 이식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의 신항식씨가 장기를 기증해 주위로부터 두터운 형제간의 애정에 큰 찬사를 받고 있다. 신씨는, 만성신부전증을 앓으면서도

장기이식 문제와 엄청난 수술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장형 신태식씨에게 자신의 한쪽 신장을 기증, 이식했다.

신씨는 지난 해 12월 23일,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 적절한 검사를 거친 후 장기를 태식씨에게 이식했다.

한편 건협 직원 일동은 신항식에게, 격려하는 뜻에서 성금을 전달했다.